

광주 녹지비율 42% 전국 최하위

전남 논·밭 많아 56% 그쳐

17개 광역단체 평균 57.2%

환경부 토지피복 지도 공개

광주의 녹지비율이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도심 내 토지 표면이 도로 포장이나 건물 등으로 뒤덮이면서 빗물 등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층(不透水層)의 비율마저 높은 것으로 드러나 녹지공간 확보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23일 “2013년까지 구축한 토지피복 지도(Land Cover Map)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자치단체의 평균 녹지비율은 57.20%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녹지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84.51%였으며, 도시지역인 7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69.77%로 가장 높았다.

전남은 55.93%로 전국 10위에 머물렀으며, 광주는 41.79%로 최하위권인 15위였다. 인천과 서울은 각각 36.41%, 30.20%로 녹지 비율이 가장 낮았다.

녹지비율은 행정구역 면적대비 총 녹지면적(산림지역·초지)으로, 논이나 밭 등 농경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전남의 녹지비율이 낮은 것도 논과 밭이 많기 때문이다.

광주의 경우에는 국립공원인 무등산

등이 둘러싸고 있음에도 도심 내 녹지 지역이 워낙 적어 녹지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표 공업지역인 울산의 녹지비율이 높은 것은 행정구역 내에 가지산과 신불산 등 산림이 많기도 하지만 태화강 주변에 조성한 수변공원과 신시가지인 삼산동 주변의 넓은 녹지 공간 조성이 한몫을 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녹지비율이 높을수록 불투수층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평균 불투수층 비율은 13.92%였으며, 서울이 57.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25.68%, 광주 24.53%순이었다. 도시지역 중 녹지확보 정책에 공을 들인 울산은 11.56%로 유일하게 전국 평균

이하였으며, 전남은 4.87%로 전국 14위였다.

이준희 환경부 정보화 담당 과장은 “불투수층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아 물순환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집중호우 시 지하수 고갈, 하천의 수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토지피복 지도를 환경공간정보서비스 누리집(egis.me.go.kr)에서 공개하고 있다. 토지피복지도는 국토의 표면현황을 물리적 특성 및 환경적 의미에 따라 분류해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색깔로 구분해 표현한 전자지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문순태 칼럼

가을 햇살이 야금야금 산야를 색칠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빛나무 잎이 노리끼리하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개울나무며 붉나무가 다투어 온몸을 불태우고 있다.

아침에 산에 오르다 소나무 숲길 양지 바른 곳에 무더기로 피어 있는 머느리밭풀꽃을 발견하고 털썩 쪼그리고 앉았다. 아침마다 다니는 산행길인데 왜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을까.

꽃대가 너무 작고 길가에 피어 있어 마더먼 밟고 지나갈 뻔하지 않았는가. 가까이서 들여다 보니 꽃이 양쪽따로 아름답다. 초롱꽃처럼 갈수록 붉은 꽃잎은 연지 바른 젊은 여인이 살며시 입을 벌린 듯하고, 그 안에 하얀 밥알처럼 생긴 것이 두 개 들어 있다.

아, 슬픈 미소같은 꽃, 이게 바로 머느리밭풀꽃이구나. 나는 두 개의 밥알 같은 것을 찌뚱이 들여다보고서야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숲속 외딴 곳에 처연하게 피어 있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머느리밭풀꽃은 슬픈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옛날 가난한 집에 시집은 머느리가 밥을 하다가 뜬이 들었나 보려고

머느리가 깔리러온 잎으로 밭을 뒤엎으니 얼마나 따끔따끔 아팠을까,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쳐진다. 일본에서는 이 풀을 ‘의복자식덩어리’라고 한다. 냉대하증이나 자궁탈수, 음, 질 세정제로도 쓰인다.

비슷한 풀로 머느리밭풀이 있는데 꽃과 열매 색깔이 다르다. 머느리밭풀꽃이 연한 붉은색인데 비해 머느리밭풀꽃은 초록빛을 띤 흰색이며 하늘빛 열매는 아기배꼽처럼 앙증맞다.

나는 시골에 와서 살면서부터 풀과 나무, 새와 곤충 이름과 그 생태를 하나씩 알아 갈 때마다 마음 속으로 쾌재를 부르곤 한다. 마치 책 한권을 읽고 나서 지적인 감흥을 흠뻑 일으켰을 때와 같은 기분이다.

꽃마다 슬픈 사연과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음을 알고 놀라기도 한다. 밥풀다 작은 꽃을 통해 인생을 생각하고 우주를 본다.

세상에는 꽃 같은 인생이 있고 인생 같은 꽃이 있다. 소나무 숲길에 숨은 듯 피어 있는 머느리밭풀꽃을 보면서, 가난한 시절을 살다 간 머느리의 슬픈 삶처럼, 간절하게 피워낸 꽃의 생명을 느낄 수 있

가을의 전설, 머느리밭풀꽃

밥알을 조금 입에 넣고 있는데, 표독스러운 시어머니가 이를 보았다. 시어머니는 혼자 밥을 먹는다면서 몽둥이로 머느리를 때렸고 머느리는 밥알을 입에 문 채 죽었다.

마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는데 이듬해 이를 모를 풀이 나왔으며 가을에 꽃이 피었다. 꽃 모양이 꼭 맞아죽은 머느리의 입술처럼 붉고 그 안에 하얀 밥알을 물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머느리밭풀꽃은 현삼과 새끼풀로, 벼가 누렇게 익을 무렵에 꽃이 피며 꽃머느리밭풀꽃, 알머느리밭풀꽃, 애기머느리밭풀꽃, 새머느리밭풀꽃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머느리밭풀꽃과 비슷한 풀로 머느리밭풀꽃이 있다. 생오지 우리 집 언덕과 마당 귀퉁이에 지천으로 자라는 1년생 덩굴식물로, 1~2m 길이의 줄기와 잎에 갈고리 같은 가시가 달려 까끌까끌하다. 7~8월에 흰색에 연한 붉은 꽃이 핀다.

이 풀 역시 머느리의 설움을 안고 있다. 머느리와 시어머니가 밭에 김을 매다가 대변을 보는데,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깻잎으로 밭을 뒤고 머느리한테는 가시 달린 풀잎을 뜯어 주었다고 한다.

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산속 한갓진 곳에, 지극정성으로 핀 꽃을 보면서, 세상에 허튼 인생이 없듯이 허투루 핀 꽃은 없다는 것을 느낀다.

올벼살 나올 때쯤 피어서 서리를 맞으면 이내 시들고 마는, 찢지만 아름답고 눈부신 존재, 머느리밭풀꽃. 이 꽃 앞에 무릎을 꿇고 싶다. 나는 머느리밭풀꽃과 머느리밭풀꽃을 볼 때마다 옛날 머느리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떠올린다. 오죽했으면 시집살이를 병어리 삼 년, 귀머거리 삼 년에 ‘맹초보다 더 맵다’고 했을까.

그래서 머느리 설움 관한 속담도 많다. 말은 가을밭에 내보내고 머느리는 봄밭에 내보낸다, 굶고 싶어도 머느리 말머느리 춤추는 꼴 보기 싫어 안 한다, 머느리가 미우면 밭 밭축이 달갈 같고 나무란다 등.

지금은 머느리 전성시대가 되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머느리 눈치를 보며 사는 세상이다. 얼마 전, 노인학대 72%가 자녀와 머느리라는 보도를 보았다. 우리 나라 노인 7명 중에서 한 명이 자식, 특히 머느리에게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학대를 받고 있다니, 이제는 시어머니밭풀꽃이 피고, 시어머니밭풀꽃이 생겨날 지도 모른다. <소설가>

“시교육청 정책 사업 재원 균형 배분 필요”

임택 광주시의원 지적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임택(새정치·동구 1·사진) 시의원은 23일 열린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최근 3년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을 보면 무상교육과 급식, 교과서 지원 등 ‘교육 복지지원’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사·학생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며 “각 사업의 균형 있는 재원배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교육복지지원 재원 증가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이지만 하지만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이 감소하면 특수교육,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수련 및 봉사활동, 직업교육 등 세부 예산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수련 및 봉사활동, 직업교육 등 사업들이 증감 차이는 있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예산 편성·결산이 최근 3~4년 동안 재정 배분이 어떻게 되고 어떤 정책분야에 주로 투입되는지 분석이 돼야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이라며 “예산은 수치지만 정책이 숨어 있고 교육감이 중점을 두는 분야가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대통령, 반기문 총장·김용 총재와 환담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사무총장 관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 용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문화재단 적립금 턱없이 부족

광주 17.3%, 전남 67.3%

지역문화 발전 제약할 뻔해

광주·전남 시도 문화재단의 자체 자금 적립이 턱없이 부족해 지역문화 발전과 독립적 운영이라는 고유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치단체와 정치권에 종속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을 대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기금 적립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의 기금 적립률은 17.28%에 불과했으며, 전남은 67.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문화재단은 목표 적립금 500억원 중 86억4100만원밖에 적립되지 않았으며, 전남은 목표 적립금 200억원 중 134억5600만원이 적립됐다. 광주의 경우 전국 13개 문화재단 중 충남문화재단(2.5%), 경남문화예술훈원(16.66%)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재단 운영의 독립 척도가 되는

올해 자체자금 비율은 광주가 2.21%(전체예산 169억2200만원 중 3억7400만원)에 불과했으며, 전남도 13.71%(169억8400만원 중 23억3000만원)에 그쳤다.

목표한 기금이 적립되지 않으니 문화재단 대다수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문체부와 광주시로부터 총 133억4800만원에 달하는 30개의 위탁사업 떠맡았다.

전남문화재단도 문체부와 광주시에 총 136억4700만원에 달하는 17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

제16회 김제 지평성 축제

2014. 10. 1(수) ~ 10. 5(일) 5일간

전북 김제시 일원(벽골제 중심)

주관 : 김제시지평성축제제전위원회 (http://festival.gimje.go.kr)